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미국 경제]

- WSJ: 연준은 금리 인하 지연할 경우 '경기 침체' 우려
- Bloomberg: 연준 대차대조표 논의한다
- CNBC: 미국인 56%가 1천불 비상 자금 없다

[미국 대선]

- CNBC: 바이든, "높은 주택 비용은 높은 임대료 부과 건물주로 탓"
- Bloomberg: 프랑스 재무장관, "올 대선 누가 당선돼도 미국의 보호주의 계 속된다"

[오일]

- CNN Business: 휘발유, 급등한다

[주택]

- Bloomberg: 미 신규주택착공 건수 5월 이래 가장 큰 폭 증가

[세계 경제]

- Bloomberg: 혼란한 국제정세 속 미-EU 무역 관계 '흔들리지만 굳건한' 한 모습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WSJ: BoA, "AI로 인해 은행의 인력 고용 줄어든다"
- WSJ: 소매업체 개점할 때 데이터가 가장 중요해
- CNBC: Nvidia와 Johnson & Johnson, 수술용 AI 애플리케이션 개발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정보

[미국 경제]

WSJ: The Fed Is Playing a Waiting Game on Rate Cuts. The Rules Are Starting to Change.

연준은 금리 인하 지연할 경우 '경기 침체' 우려

- 현재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사는 이번 주에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하 시점을 좀 더 연기할지 여부다. 최근 강한 인플레이 때문이다.
- 그러나 연준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. 만약 금리 인하 시기가 너무 늦어질 경우 생각지 않게 경기 침체가 야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.
- 연준 관리들은 이번 주에 침체 가능성을 내세우지 않을 것이다. 그러나 이러한 리스크가 올해 남은 기간 연준의 입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어 올해 어느 시점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.
- 현재 관심사는 작년 마지막 6개월 간의 인플레이 둔화 현상이 계속 될 것인지 아니면 인플레이 둔화 현상이 단지 일시적인 이상 현상이었는지이다.

- 한편 내일 수요일 연준이 회의를 끝내면서 금리는 동결하고, 주요 의제로 최근 금리 상황과 향후 경제 경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.

WSJ 기사

Bloomberg: The Fed Has a Lot of Questions to Answer About Its Balance Sheet

연준 대차대조표 논의한다

- 연준이 이번 주에 대차대조표에 대해 깊이 논의할 예정이다. 구체적으로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과도한 현금을 회수하는 속도를 언제 어떻게 늦출 것인지 등을 논의하게 된다.
- 이 논의의 핵심은 정책 결정자들이 연준의 7조 5천억달러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더 줄일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.
- 연준은 지난 2022년부터 6백억달러 규모의 국채와 3백50억불 규모의 모기지 부채를 대차대조표에서 줄이는, 이른바 양적 긴축을 해왔다. 그러나 현재는 이 속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.

Bloomberg 기사

CNBC: 56% of Americans can't afford a \$1,000 emergency expense: We are 'living in a paycheck-to-paycheck nation,' money expert says

미국인 56%가 1천불 비상 자금 없다

- 최근 Bankrate에 따르면 미국인의 대다수는 비상 자금으로 1천불의 여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오직 응답자의 44%만이 갑작스러운 지출에 신용카드나 친구, 가족에게 빌릴 필요 없이, 자신들의 저축액을 사용할 수 있다.
- 이는 팬데믹과 높은 인플레이 등에 따른 예상치 못한 경제 사건 등으로 미국인들의 개인 재정 상태가 부담을 겪은 것과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다.

CNBC 기사

[미국 대선]

CNBC: Biden to target 'rent gouging' landlords as high housing costs factor into 2024 race

바이든, “높은 주택 비용은 높은 임대료 부과 건물주로 탓”

-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높은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를 표적으로 삼을 예정이다.

- 바이든은 특히 과도한 임대료의 주범으로 기업형 건물주에 책임을 물으려는 입장을 캠페인 전략에 포함할 예정이다.
- 주거 비용 이슈는 올해 1월 미 대선의 유권자들에게 가장 큰 이슈다.

CNBC 기사

Bloomberg: Neither Biden Nor Trump Will End US Protectionism, Le Maire Says

프랑스 재무장관, “올 대선 누가 당선돼도 미국의 보호주의 계속된다”

- 그는 11월 미 대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에 누가 당선되어도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을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.
- 그는 동시에 유럽은 무역에 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.
- 유럽 연합은 미국 대선이 무역에 어떤 여파를 줄지 이미 분석 중이며, 이에 대응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. 특히 트럼프가 복귀할 경우를 감안해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[오일]

CNN Business: Surging gas prices just hit a significant milestone **휘발유, 급등한다**

- 휘발유 가격이 작년 하반기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.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 상승할 가능성이 높는데, 러시아의 오일 시설들이 드론 공격을 계속 받게 될 경우 해당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.
- 휘발유 가격은 지난 주 예상보다 높은 소비자 가격 지수와 도매 인플레이 수치의 주범이었다.
- 미 평균은 이번 주 월요일 갤런당 3달러 47센트로 작년의 3달러 45센트보다 올랐다.

CNN Business 기사

[주택]

Bloomberg: US Housing Starts Rise by Most Since May After Steep Decline

미 신규주택착공 건수 5월 이래 가장 큰 폭 증가

- 미 신규주택착공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. 이는 연초 날씨 관련 약세 이후의 회복세로, 건설업자들이 호의적 모기지율과 기존 주택 매물 부족에 영

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.

- 화요일 발표된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2월 주택착공 건수는 10.7% 증가하여, 5월 이후 최대치인 1백52만 건을 기록했다.
- 향후 건설 추정치인 건축 허가 건수도 1백52만건으로 상승했다.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이다.

Bloomberg 기사

[세계 경제]

Bloomberg: US-Europe Trade Ties ‘Shaken Not Stirred’ by Global Turmoil 혼란한 국제정세 속 미-EU 무역 관계 ‘흔들리지만 굳건한’ 한 모습

- 미국과 EU 간의 8조7천억 달러 규모의 무역, 투자, 노동의 경제적 흐름이 다시 글로벌화되는 시대를 견뎌내고 있다.
- “Shaken, Not Stirred”는 미 상공회의소 등의 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 1장의 제목이다. 해당 문구는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2년이 흘렀지만, 흔들리면서도 굳건한 무역 관계를 적절히 비유한다.
- 해당 보고서에는 “미국과 유럽은 여전히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이자 지질학적 기반이다.”라고 설명한다. “전 세계에서 미국과 유럽만큼 긴밀히 통합된 지역은 없다.”
- 보고서는 최근 정책적 긴장감이 팽팽한 브뤼셀과 워싱턴 간의 오랜 경제 관계에 낙관적 전망을 제시한다. 또한, 보고서는 급성장하는 디지털 무역 분야의 주요 불균형을 지적하기도 했다.

Bloomberg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WSJ: Fewer People Will Work in Banking as AI Takes Over, Bank of America CEO Says BoA, “ AI로 인해 은행의 인력 고용 줄어든다”

- 뱅크오브아메리카 최고책임자 Brian Moynihan가 “머신러닝과 AI가 은행 업무 및 고객 금융 관리를 맡으면서, 은행 산업은 더 적은 사람들을 고용하게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- Moynihan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소매 은행 직원은 약 10만명에서 6만명으로 줄었지만, 소비자 예금은 약 5천억 달러 증가했다고 설명했다. 은행을 통해 처리되는 규모도 “굉장히 커졌다”고 그는 덧붙였다.
- Moynihan은 새로운 매출 1달러가 창출될 때마다 인력 기여도는 점점 줄어들겠지만, 남은 직원들은 부가가치가 더 높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,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.

WSJ 기사

WSJ: Location (Data) Is Everything for Retailers Opening Stores 소매업체 개점할 때 데이터가 가장 중요해

- 지난 3년과 동일하게, 2023년에도 소매업체 폐점 수보다 개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. Coresight 리서치가 추적한 기업 발표에 따르면 해당 추세는 2024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며, 소매업 공실률은 전국적으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.
- 휴대폰 데이터 및 기타 지역 분석의 정교함이 이러한 소매업체의 지속적 확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. 기업 및 임대인이 이전보다 정확하게 성공 가능성이 높은 매장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.
- 쇼핑객 휴대폰의 핑과 GPS 신호는 판매자에게 쇼핑객의 수, 방문 시간, 방문 장소, 그리고 1년간 재방문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. 이를 활용해 판매자는 쇼핑객의 정보를 수집 및 추적한다.
- RetailStat의 부동산 서비스 부문 사장 Josh Suffin는 “이제 소매업체에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다”고도 말했다.

WSJ 기사

CNBC: Nvidia and Johnson & Johnson to develop new AI applications for surgery Nvidia와 Johnson & Johnson, 수술용 AI 애플리케이션 개발

- 월요일 존슨앤존슨에서 엔비디아와 함께 수술용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.
- 엔비디아 의료 담당 부사장 Kimberly Powell는 “존슨앤존슨의 메드테크와 함께 수술 전 과정에서 AI를 기계와 플랫폼에 결합하여 수술 집도 의사가 그들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돕겠다”고 말했다. 예를 들어, 기업들은 AI를 활용하여 수술 영상을 분석하고 시간 낭비가 큰 문서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다.
- Powell은 “음성이든 신체 내부 카메라이든, 수술실 내부의 모든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여 이 생성형 AI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.”라고도 설명했다.

CNBC 기사

[보고서]

美 6월 금리인하 전망 50%안팎...골드만, 연내 인하횟수 4→3회로

미국채금리 연중 최고 수준...이달 금리동결 관측 속 신흥국 통화 약세 지속

미국 인플레이션(물가 상승) 하락 속도의 둔화 징후를 시사하는 각종 경제지표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미 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의 금리인하 시점이 늦어지고 인하 횟수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(이하 현지시간) 보도했다.

이에 따라 미국 국채 2년물과 5년물 금리가 올해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.

시장은 19~20일 미 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, New York, NY 10022

[Unsubscribe office@kocham.org](mailto:office@kocham.org)

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

Sent by office@kocham.ccsend.com